

# 韓國의 佛敎繪畵

鄭于澤(韓國美術研究所)

## 머 리 말

불교회화란 부처의 조상(彫像)을 佛像이라 하듯이 부처의 畵像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줄여 보통 「佛畵」라 부르고 있다. 佛畵는 그 말 자체가 뜻하듯이 佛敎라는 특정 종교를 위한 그림으로 佛敎의 회화활동은 법당과 탑등 주로 건조물을 장식하기 위한 채색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발생초기의 불화는 장엄기능과 더불어 敎化用으로도 사용되었으나 점차 난해한 불교교리를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경전의 시각화(視覺化)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복잡한 내용까지도 표현 가능한 佛畵제작이 성행하면서 禮拜用을 포함한 다양한 불화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불화는 좁은 의미로는 예배의 대상이되는 불교의 여러 존상을 그린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존상들은 원칙적으로 정면을 향하며 의궤(儀軌)에 강한 구속을 받는다. 넓은 의미로는 불교적 내용을 담은 모든 종류의 그림을 일컫으며 이 경우 화면구성과 각 존상 및 소재의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불화는 알려진 것만도 고려 불화 150여점을 비롯하여 수천점을 헤아릴 것이다. 더욱이 조선시대의 전기 불화가 주로 일본등 해외에 있어 거의 그 실태를 알 수 없고, 국내의 불화도 공개되거나 조사되지 않는 것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재하는 불화의 수는 짐작 이상으로 많을 것이다. 이는 불화가 불교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화를 무시하고는 한국 미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화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를 위한 그림이긴 하나 불교가 우리 정신문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불화 역시 각 시대의 사회, 종교, 문화상황을 짐작, 복원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미술 분야인 것이다.

## 1. 불화의 기원

불화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다만 조각과 건조물의 성립시기와 거의 같다고 추측될 뿐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화는 기원전 2세기경에 그려진 아잔타석굴(Ajantā 石窟)의 벽화들이다. 그러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耶雜事)라는 경전에 의하면 인도 최초의 사원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불전도(佛傳圖), 본생도(本生圖) 그리고 야차(夜叉)등 넓은의미의 불화가 그려졌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워 보아 적어도 서기전 3세기에는 어떠한 종류 형태로든지 불화는 그려졌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7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불교적인 소재, 또는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워보아 실제의 제작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불화의 재질

### 1) 재질(材質)에 의한 구분

#### 가) 벽화(壁畫)

벽화에는 돌벽(石壁), 토벽(土壁), 판벽(板壁) 그림이 있어 각각은 표현과 기능을 달리 하고 있었던 것 같다.

#### 나) 거는 그림(幀畫)

### 2) 용도(用途)에 의한 구분

#### 가) 장엄용(莊嚴用)그림

#### 나) 교화용(教化用)그림

#### 다) 예배용(禮拜用)그림

## 3. 불화의 주제

불화는 주제내용에 따라 현교화(顯敎畫)와 밀교화(密敎化)로 크게 나누고 있다. 현교화는 설화도를 비롯하여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또는 정토교(淨土敎)관계 그림, 그리고 선종(禪宗)그림등을 일컫고 있으며, 밀교화는 만다라(曼荼羅)로 통칭되는, 수법(修法)의 본존으로 그려진 도식적인 여러 존상의 집회도(集會圖)를 말한다.

### 1) 상·중단(上·中壇)불화

#### 가) 석가여래계불화

##### ① 大雄殿;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법화경」 卷 第 3 授記品, 第 6 從池踊出品에 의거하여 붙여진 대웅전에 봉안되며, 직지사, 쌍계사, 용주사의 경우처럼 「석가삼불도」의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그림은 「영산전」에도 후불화(後佛畫)로서 모셔지는데 이 경우, 송광사, 통도사등처럼 석가여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와 함께 봉안되기도 한다.

##### ② 八相殿, 靈山殿; 팔상도(八相圖, 捌相圖)

불교의 교주인 석가여래의 일생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불교신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리고 「月印釋譜」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석가여래의 전기(傳記) 자체가 곧 불교교리와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일찍부터 그림 또는 조각으로 묘사되었다. 즉 이 그림은 석가여래의 일생을 여덟장면으로 압축 묘사한 것으로 『佛本行集經』과 『佛所行贊』을 기본 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팔상전 또는 영산전에 봉안되는데, 특히 범주사의 팔상전은 잘 알려져 있다.

##### ③ 羅漢殿, 應眞殿; 나한도(羅漢圖)

나한은 아나한(阿羅漢)을 줄여서 부른 말로서 석가여래가 열반한 뒤 미륵부처가 나타나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이 세상의 불법을 수호하도록 위임받은 분들이다. 나한에 대한 신앙

은 선종(禪宗)의 성행과 함께 심화되었고, 특히 숭불정책으로 불교가 극도로 융성했던 고려에서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의 자연스런 표출로 나한에 대한 신앙도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형식은 16나한 18나한, 그리고 500나한도가 있으며, 이들을 한폭 또는 수폭에 나누어 그리기도 하였다.

#### 나)아미타여래계 불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는 아미타경에 의하면 아미타우스(Amitayus) 즉 무량광(無量光)과 아미타바(Amitabha) 즉 무량수(無量壽)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등 동북아시아에서는 아미타바 즉 무량수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행복한 세계, 불국토(佛國土) 즉, 정토(淨土)가 수없이 많다고 한다. 아미타여래는 습남은 정토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중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다.

아미타여래와 극락세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阿彌陀經)이며 이를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 하여 정토교의 근본경전으로 삼고 있다. 아미타여래 그림은 이러한 정토삼부경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제작된 그림을 일컫는 것으로 고려시대는 종파를 초월한 통불교적으로 많이 그려졌고 형식 또한 다양하다.

#### ①觀經變相圖

이 그림은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회화화한 것으로 그림의 내용은 경전이 쓰여지게 된 동기, 즉 비극적 사건을 서술한 서품(序品)만을 묘사한 「관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와 구제의 장면을 서술한 본품(本品)만을 묘사한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로 크게 나뉜다. 전자의 예로는 사이후쿠지(西福寺), 후자의 예로는 지온인(知恩院)의 두 점(1323년과 1465년)이 잘 알려져 있다.

#### ②아미타여래도

##### ㄱ)설법도(說法圖)

서방극락세계의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가 설법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수미단(須彌壇)위에 놓인 연꽃대좌 위에 정면을 향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형식은 아미타여래 단독의 “독존도”(獨尊圖), 관음·세지 두 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 그리고 여덟의 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등이 있다.

##### ○독존도

아미타여래만을 그린 단독의 그림으로 일본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1306년)과 교꾸린인(玉林院)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 ○아미타삼존도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觀音)과 세지(勢至)보살을 배치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형식은 정토삼부경에 의거하고 있는데 특히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두 보살은 아미타여래의 보처(補處)보살로 관음은 보관(寶冠) 가운데 화불(化佛:阿彌陀如來)을, 세지는 정병(淨瓶)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두 보살의 도상학적 특징으로 고려불화는 이 특징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다.

#### ○아미타팔대보살도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 또는 아래에 여덟의 보살이 배치되어 있는 도상이다. 이 도상은 불공역 『팔대보살만다라경』(不空譯 『八大菩薩曼荼羅經』)을 기본으로 하여 성립한 밀교도상(密敎圖像)의 하나이다. 경전에 나타나는 팔대보살은 관음(觀音), 문수(文殊), 보현(普賢), 금강장(金剛藏), 제장애(除障礙), 허공장(虛空藏), 미륵(彌勒), 지장(地藏)보살이다.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노영(魯英)필금선묘(金線描;1307년)와 일본·마쓰오데라(松尾寺;1320년), 코후쿠고고꾸젠지(廣福護國禪寺) 그리고 천은사(泉隱寺;1776년)의 그림이 잘 알려져 있다.

#### ㄴ)내영도

아미타여래를 신봉하면 최상의 세계인 극락정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내영도는 아미타여래가 극락에 다시 태어날 왕생자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관무량수경』의 본품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 ○독존내영도

이 그림은 아미타여래 한 분만을 그리고 있는 내영도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일본은행의 자회(自回)필(1286년)그림이 있고 일본 쇼보지(正法寺)의 작품을 꼽을 수 있다.

#### ○아미타삼존 내영도

내영도 가운데 가장 많이 그려진 형식으로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관음, 오른쪽에 세지보살이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 ○아미타팔대보살 내영도

이 그림은 아미타삼존내영도와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단지 협시의 숫자를 여덟보살로 하였다는 것이 다르다. 보살의 명칭은 아미타팔대보살설법도와 거의 같아도 보이며, 역시 동아시아 불교도상 가운데 가장 고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이다.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일본 도꾸가와미술관(徳川美術館), 죠쿄지(淨敎寺)의 그림을 우선 손꼽을 수 있고, 조선시대 불화로는 무위사 극락전 벽화가 유일한 것 같다.

#### ③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음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들을 제도하고 고난에서 구제하여 주며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즉 현세이익(現世利益)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음보살의 공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적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法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과 『화엄경』 입법계품(『華嚴經』入法界品)이 대표적인 경전이다. 특히 『화엄경』 입법계품은 화엄신앙의 성행과 함께 넓게 유포되었으며 따라서 관음은 어느 보살 못지않게 친근감이 있고 인기있는 보살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고려불화의 관음도는 이 경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고려불화 가운데 단일 도상으로는 숫적으로 수월관음도가 제일 많다.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고려불화인 서구방(徐九方)필 일본 센오쿠하꼬간(泉屋博古館:1323년)의 것과 타이토꾸지(大德寺), 단산진자(談山神社), 그리고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의 수월관음도 등 20여점이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그림으로는 무위사 극락전의 수월관음도가 대표적이다.

#### 다)비로자나계(毘盧舍那系) 불화

비로자나를 교주로 하는 것이 華嚴敎로서 『大方廣佛華嚴經』(약칭 『華嚴經』:구역은 60卷 신역은 80卷입)을 근본경전으로 삼고 있다. 이 경전에 의하면 비로자나는 끝없이 많은 공덕을 쌓아 부처가 되어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교주로서 광명을 비추고, 그 광명에 의하여 중생을 연화장세계에 태어나게 한다는 부처라 한다.

현존하는 불화를 통하여 볼 때 비로자나는 지권인(智拳印)을 취하는 것이 도상적 특징이며, 불화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①설법도

비로자나가 중앙에 앉고, 좌·우에 文殊, 普賢 두 보살이 있으며, 그 주위에 수 많은 권속들이 배치되는 그림으로 미국·보스톤 미술관의 것이 유명하며, 권속은 표현하지 않고 비로자나 삼존만 그린 그림도 독일 켈른 동양 미술관에 전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는 범어사, 선운사(1840년)이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설법도에는 중앙에 비로자나불(法身), 왼쪽에 노사나불(報身), 오른쪽에 석가여래(化身)을 배치한 비로자나 삼신도가 있다. 통도사(1759년), 대흥사 등의 그림이 잘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불화는 그다지 많지 않다. 비로자나를 모시는 건물은 『大寂光殿』 『大光明殿』 또는 『毘盧殿』이라 부른다.

##### ②화엄경 변상도

화엄경의 내용을 회화화한 그림으로, 일곱군데에서 아홉번 설법한 것을 묘사하였다. 하여, 「칠처구회도」(七處九會圖)라고도 부른다.

현존하는 불화 가운데 가장 복잡한 구성이며, 송광사(1770년) 선암사(1780년), 불화가 대표적이다.

#### 라)미륵여래계 불화

미륵(彌勒)은 보살의 모습으로 도솔천에 있으면서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56억 7천만년 뒤에 이 땅에 내려와 부처의 모습으로 용화수 아래에서 세 번의 설법을 통하여 그 동안 구제 받지 못한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미래부처이다. 따라서 미륵한 보살과 부처의 양면성을 띄고 있으며 표현되는 형상 역시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륵여래 관련 불화는 미륵정토변상도, 미륵하생경변상도, 미륵래영도 등이 있으나 현존하는 그림으로는 일본·신오인(1350년), 지온인의 미륵하생경변상도가 있을 뿐 다른 도상은 없는 것 같고, 특히 조선시대의 불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조각상으로는 금산사, 관촉사 등을 비롯하여 상당 수 존재하고, 신앙 또한 성행했던 것으로 미루워보아 불화도 많이 제작되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그림 또는 조각상을 모신 건물을 미륵전, 또는 용화전이라 한다.

### 마)약사여래계 불화(藥師如來圖)

약사여래는 동방정유리세계(東方淨琉璃世界)의 교주이며, 병든자를 구원하는 의왕(醫王)이기도 하여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 또는 의왕여래(醫王如來)라고도 부른다.

약사여래도의 도상적(圖像的)특징은 좌상이든 입상이든 왼손에 약그릇(藥器,藥壺)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8세기경에 정형화 되었다 한다.

### 바)천불화(千佛畫)

천불은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천불을 뜻하는 것으로, 모두 삼천불을 그리는 것이 기본이나, 현세의 천불만을 그린 경우도 있다. 그림의 구성도 한쪽, 세쪽, 네쪽등 다양하며, 선운사(1754년),보광사,광덕사 등의 천불화가 잘 알려져 있다.

### 사)조사도(祖師圖):진영화·영정(眞影畫·影幀)

좁은 의미의 조사도는 달마선사를 비롯한 선종의 조사스님들의 초상화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종파에 관계없이 고승들의 초상화를 조사도라고 하며, 넓나적으로 두 개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영정(影幀) 또는 진영(眞影)이라고도 부른다.

## 2)하단불화

### 가)지옥계불화

#### ①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지장은 범어로 크시치가르바(Kstigarbha)라 하며 고대인도의 바라문교의 지신(地神)인 대지의 덕(德)을 의인화하여 불교에 수용한 보살이다. 지장보살의 역할과 성격에 대하여는 지장신앙의 근본경전 즉 지장삼부경(地藏三部經)이라 일컬어지는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 『지장본원경』(地藏本願經),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잘 나타나 있다.

#### ○독존도

일본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의 입상(피건형),선도사(善導寺)의 입상(성문형),요주지(養壽寺)의 좌상(피건형)등은 잘 알려진 고려시대 지장보살도이다.

#### ○지장시왕도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시오아 즉, 열명의 오아이 권속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시왕 이외에도 사천왕(四天王),제석천(帝釋天),범천(梵天)등이 함께 표현된다. 이 시왕들은 육도에서 헤매이던 중생들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세계를 결정해 주는 일종의 재판관들로서 명부세계(冥府世界)의 대표자격인 염라마대왕(閻羅魔大王)신앙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②삼장보살도

삼장보살이란 천장(天藏),지지(地持),지장(地藏)의 세 보살을 일컫는 것이나 현재 전해지는 경전 가운데 이 삼장에 관련된 경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화면구성은 한쪽의 화면에 천장보살이 중심에 앉고 좌·우에 지지와 지장보살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존 작품 가운데 고려시대의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의 예로는 일본 호도지(1588년)를 비롯하여 파계사(1707년), 영국사(1722년) 그림이 잘 알려져 있다.

### ③감로왕도

이 그림은 아귀(餓鬼)의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의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하여 「우란분경변상도」라고도 한다.

현존 작품도 상당히 많은데 일본 야쿠젠지(藥仙寺:1589년) 은혜사(1762년), 쌍계사(1728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 ④관음·지장병립도(觀音·地藏菩薩竝立圖)

#### 나)칠성(七星)불화

주존은 칠성광여래(熾星光如來)이며 일광(日光)과 월광(月光)보살을 협시로 거느리고 있다.

현재 볼수 있는 칠성도 가운데 1749년의 천은사, 1895년의 선암사 작품이 내용이 충실하고 잘 알려져 있다.

#### 다)제석·신중(帝釋·神衆)불화

제석은 고대 인도의 토속신이었으나 불교에 귀의하여 도리천(忉利天)을 주관하는 신이 되었다. 그리고 신중이란 제석천을 비롯하여 범천(梵天),인왕(仁王),사천왕(四天王),팔부중(八部衆), 12신장(十二神將)등 토속신이면서 불교에 수용된 호법신(護法神)을 통칭하는 말로 신장(神將)이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14세기경의 부석사 제석, 범천, 사천왕도가 잘 알려져 있고, 쌍계사(1781년),통도사(1792년)의 제석 및 제석천룡도, 그리고 통도사의 오계수호신장도(五戒守護神將圖, 1736년), 팔금강도(八金剛圖, 1736년)등 상당수가 남아있다.

#### 라)산신도·기타

산신은 산의 신령이라고 여겼던 호랑이의 變化身으로, 토착신앙이었던 산신을 佛敎化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산신도이다.

그림의 구성은 심산유곡을 배경으로 하여 산신의 호랑이를 타거나 또는 곁에 두고 있는 것처럼 짜여지는데, 산신은 백발의 노인으로, 호랑이는 애교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그림을 모시는 건물을 산신각이라 하며, 사찰의 제일 윗쪽에 둔다.

산신도는 어느 사찰에나 봉안하고 있어 그 숫자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선암사(1858년) 등의 그림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호법, 호국을 목적으로 수없이 열렸던 마리지천(摩利支天)법회를 증명이라 하듯이 마리지천도가 세점 전하고 있고,十方의 무수한 부처를 상징한다는 53불도가 선암사(1702년),송광사(1725년)에 전하고 있다.

### 3)경변상도(經變相圖)

경변상도란 금니(金泥)나 은니(銀泥)로 쓴 경전, 즉 사경의 내용을 압축하여 묘사한 그림

을 일컫는 말로서 목판으로 인쇄한 경전의 변상도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금·은니로 쓴 사경이 매우 성행하여 사경변상도라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불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질적인 면에서 퇴조의 길을 걸어 왔지만, 그 초기적 발전양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옛모습을 이어왔다. 그리고 현존 불화들은 단지 종교미술로서의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회화사 전반의 동태를 엿볼 수 있는 깊은 함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화는 이미 특정 종교의 소산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이며 우리 정신세계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